

# 〈욕심 없는 삶〉

글 그림 황보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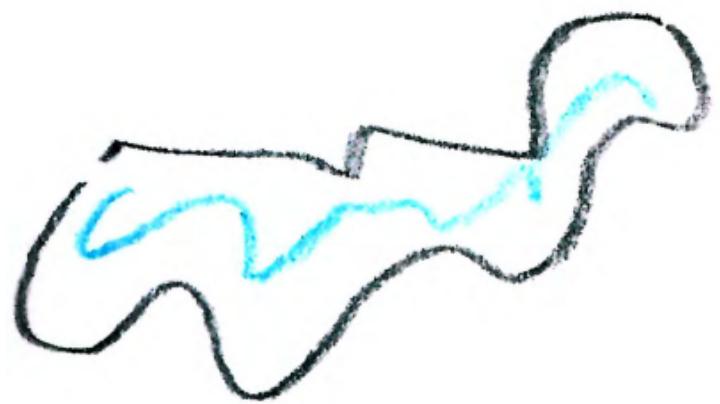
내 마음 강한 편이 아니다



내 마음이 약해서 굳게 나가지 못하고



마음이 힘들면  
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나도 안다.



잘 흔들리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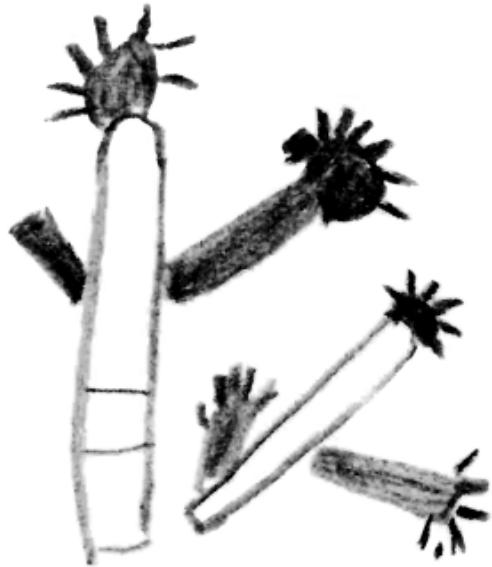
내 마음을 굳게 잘지키지 못 했네.



지금은 내 속에 주인공한테  
굳게 다짐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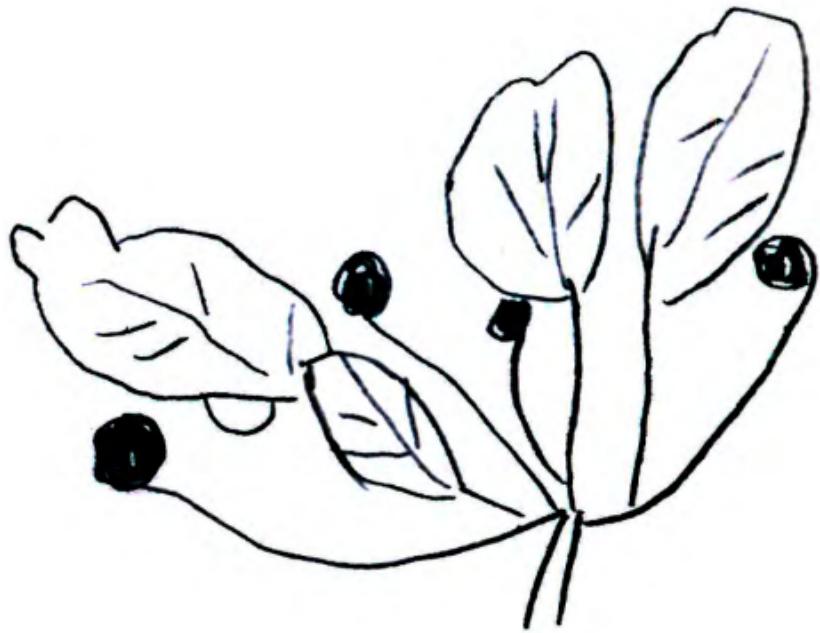
남은 인생 잘 지키고 지네라



내가 나를 무시하고 산게 잘못 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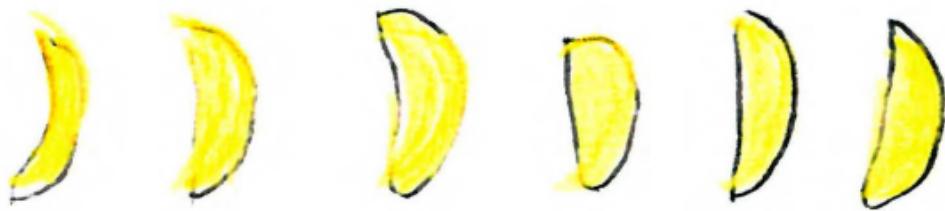
늙어보니 지금 알겠다.



내 인생에 이 시간  
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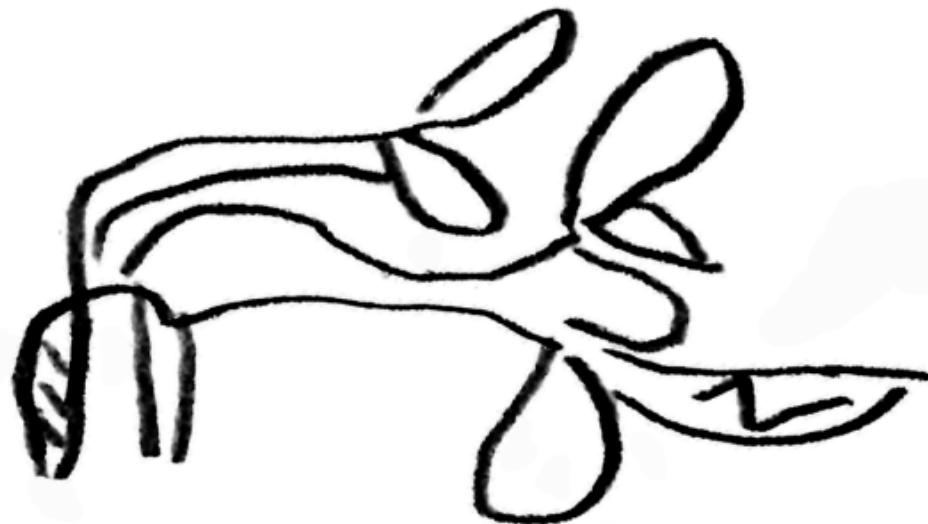
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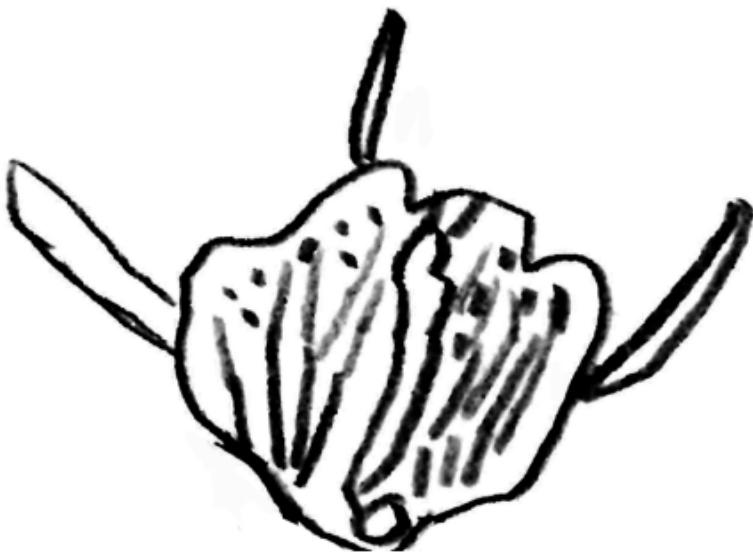
네 일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



항상 나를 살피고 가볍게 행동 하지 않고



자세를 낫추면  
큰 불행은 오지 않는다.



낫추고 살아야 평화롭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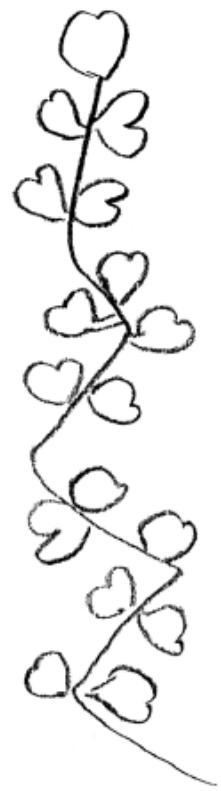


마음은 살타레

풀고 살길 원한다.



청춘 하늘에 먹구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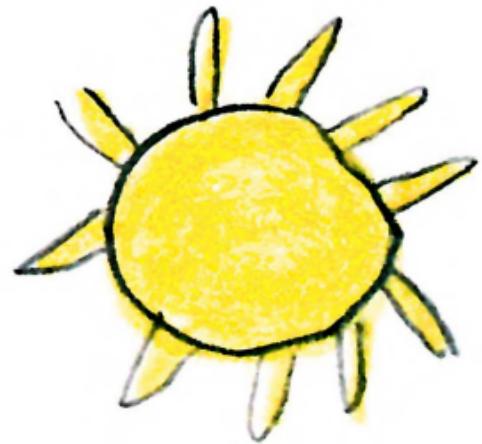


바람 불면 밟아 지고 하는데

내 마음은 어제 풀리까



마음을 꼭 잡고 살아야 한다.



하루 하루

행복한 날씨처럼 살길 원한다.

내가 갈 때 모든 짐 다 놓고

새처럼 훌훌 뒤돌아 볼 것 없이

내가 지은 죄는 바람 같이 사라지고

저 허공에 구름 같이 사라지고

한강 맑은 물에 깨끗이 씻고

맑은 마음으로 가려 하네